

광주 버스 노조 “파업으로 불편 드려 죄송합니다”

시내버스 파업은 끝났지만

전국 가장 낮은 임금 수준 호소 서울·부산 비해 최대 50만원 차이 “불가피한 선택 이해해 주시길”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 비해 광주 버스기사의 임금이 낮습니다. 시민들이 지불하는 버스비는 계속 줄어드는데, 버스 기사들에게만 적자 등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13일간 진행된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파업이 지난 20일 종료됐다.

파업으로 차질을 빚었던 시내버스 운행은 정상화됐지만, 불씨는 남아있다. 지난 20일 광주광역시청 접견실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박상복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임동춘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시내버스 임금협합의서를 작성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교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상복 노조 위원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완전히 교섭이 끝난 것이 아니다”며 “강기정 시장이 정상 운영을 조건으로 제안해 수용했을 뿐이고, 시내버스(가칭)대중교통혁신회의”를 통해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타 지역에 비해 큰 차이가 나는 광주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을 지적했다.

“임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달 서



광주 시민들이 지난 19일 광주 서구 광천동터미널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버스 파업으로 배차 시간이 길어지면서 무더위속에 이종고를 겪고 있다.

울과는 약 65만원 가까이, 부산과는 5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안다”며 “부산은 56만원이 오른 반면, 우리는 겨우 13만원 올랐고, 누적하면 월 100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더는 버티기 힘들었다.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파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파업 기간 중 노조원들의 월급은 일하지 않은 만큼 삭감됐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감수하며 싸웠다. 보상을 시에서 해주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향후 협상 일정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모든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약속했다. 시가 재정 투입을 약속한 만큼,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러나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 현실

을 바꾸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27년 운전해도 월 340만원”

정성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회장은 보다 구체적인 현장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는 “버스 기사로 27년을 일했지만 실 수령액은 34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연차를 쓰면 수당이 빠져 더 적어지고,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임금이 늘어나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정 지회장은 광주의 구조적 문제를 지

적했다.

“광주 시내버스 기사들은 이미 10년 전 통상임금을 포기하고 ‘시급제’로 전환해 상여금, 보너스, 고정수당 등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받았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손해가 크다”며 “서울은 물론 대전과도 30만~45만원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금 격차 외에도 “초과근무 기회도 공정하지 않다. 사업주에게 잘 보이는 기사에게만 기회를 몰아주는 경우도 많다. 이런 차별이 만연해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외부에서는 기사들이 연봉 5000만 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저는 27년 동안 단 한 번도 5000만원 넘겨본 적 없다.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말 고생에 비해 받는 대우는 너무 적다”고 말했다.

정 지회장은 파업 시기조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오죽하면 방학이나 주말에 파업하자고 제안했겠나. 교통약자를 배려해 고민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시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광주시가 노동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과도한 할인, 지하철 환승 등으로 버스 재정은 줄어드는데, 책임은 버스 노동자에게 떠넘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노력했고, 고의로 운영을 중단한 것이 아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파업의 책임이 모두 버스 기사에게만 있는 것처럼 몰아가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추락사고 오명’ 광주 제석산 구름다리 아래 터널형 구조물 추진

특별교부세 15억원 요청

주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인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잇따라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전남일보 6월 24일자 6면) 남구가 구름다리 아래 터널형 복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제석산 도로 터널 복원 사업을 위한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광주시에 요청했다.

제석산 구름다리 아래 왕복 2차선 도로에 철근 콘크리트 또는 강관 파이프 등으로 터널형 복개 구조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남구는 길이 40m, 높이 8~12m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3~7m 토사층을

만들어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녹지 공간이 추락 사고가 발생해도 그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구는 이후에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구조물 길이를 130m까지 늘리고, 그 위에 재차 식수해 생태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도로는 1997년 제석산 일부를 깎아 관통하는 방식으로 개설됐다.

도로 탓에 보행이 제한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1999년에는 37m 높이 구름다리가 지어졌다.

산등성이 2개를 잇는 구름다리는 여러 산책로를 오갈 수 있게 했지만, 자살 등 잦은 추락 사고로 우려를 낳았다.

2017년 이후에만 이곳에서 모두 7명이 숨졌다.

남구는 울타리 높이를 1.2m에서 2m로 늘렸으나 추락 사고는 반복됐다.

올해에만 3번째 사고가 발생하자 구름다리 아래에 와이어 그물망을 상단 1322㎡, 하단 548㎡ 규모로 이중 설치하기로 했다.

그물망과 완충 시설 등 보강 계획에 추락을 예방하지 않고 충격을 완화하는 식의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남구 관계자는 “터널형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으나 아직 막연한 구상 단계라서 사업 내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며 “추락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준 기자

AI 작곡부터 화성 탐사까지 “전남 수업을 바꾸다”

전남교육청, ‘2030수업연구회’ 신나는 실험...사례 공유 확산

AI를 활용해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화성 탐사를 주제로 한 협업 프로젝트 수업이 전남 교실 곳곳에서 펼쳐진다. ‘2030수업 연구회’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이 주도하는 교실의 변화가 교육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25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목포항도여중 ‘사운드퓨처 연구회’는 음악과 디지털 역량, 세계시민교육을 통합한 프로젝트형 수업을 시도해 눈길을 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을 활용해 직접 멜로디를 만들고, 그 음악에 어울리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단순히 음악을 듣고 연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도구와 융합된 창작 활동을 통해 표현력과 감수성,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께 키울 수 있었다.

‘화성 탐사’를 주제로 한 매성고 ‘매성 에듀브릿지 연구회’의 협업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 주도 활동과 디지털 사고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영어, 수학, 과학, 인공지능을 융합한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AI 기반 영어 회화를 구성하고, 주제와 연계된 탐구 활동을 수행하며 과학적 상상력을 확장해 나갔다.

순천매산여고 ‘미래창조과학연구회’는 센서를 활용한 지역 환경 측정과 분석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과학 수업을 진행했고, 용정중 ‘2030 AI 교실 연구회’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시 창작과

그림책 만들기 활동을 운영하며 창의성과 소통 역량을 키웠다.

전남교육청은 이러한 2030교실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수업 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5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2025 중등 2030수업연구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도내 2030수업연구회 소속 50팀과 수업 컨설턴트 등 322명이 참석했으며 수업 사례 발표, 수업리더교사 대상 컨설팅, 연구회 간 협의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 밖에도 △예당고 ‘AI 기반 토론과 보고서 작성’ △나주금천중 ‘문학 분석·SNS 소통·생태 영상 제작’ △남악고 ‘가치 탐구형 윤리 수업’ △순천미래과학고 ‘기후변화 주제 미네르바 토론 수업’ 등 다양한 교과와 실천 사례가 공유됐다.

참여 교원들은 각자의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전남형 미래 교수학습 모델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2030수업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수업혁신과 미래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자리”라며 “교사들의 실천적 수업 나눔이 학교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남형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올해 유아 51실, 초등 43실, 중등 40실 등 총 134개의 ‘2030교실’을 선정하고, 미래형 수업 공간 조성과 활용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교육청, 디지털 성폭력 없는 학교 만든다

4개 학교 대상 ‘포티켓’ 캠페인 환경 점검·전문가 컨설팅·예방교육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디지털 성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포티켓’ 캠페인을 시작한다.

‘포티켓’은 ‘포도’와 ‘에티켓’의 합성어로, 교육부가 기존 단속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즐겁고 올바른 촬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긍정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캠페인이다.

시교육청은 25일부터 오는 7월17일까

지 교육부 ‘포티켓’ 현장지원단과 함께 매곡초등학교,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송정동초등학교, 살례시오고등학교 등 광주 지역 4개 학교에서 ‘디지털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특히 지역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현장 점검을 벌이고, 학교환경 개선, 예방 중심 대책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학생 입장의 디지털 성폭력 대처 요령 및 도움기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관련 법령사항)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 등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시범 운영결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불법촬영기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지역 전문가와 함께 학교 내 취약구역에 대한 컨설팅 및 학교별 맞춤형 디지털 성범죄 대응 지원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